

Part 1. 시

1강 시의 본질대로 읽어내는 방법

세계의 구성을 이해해야 한다.

Part 1. 시

1강. 시의 본질대로 읽어내는 방법

1. 세계의 구성을 이해해야 한다.

CODE : 세계의 구성

1. 시의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화자’, ‘자아’, ‘대상’, ‘세계’, ‘상황’, ‘인식(시선)’
2. 화자의 ‘자아’를 유추하라.
3. 화자가 인식한 ‘대상’을 상상하라.

Note

〈보기〉를 읽으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서로 다른 범주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단, 〈보기〉가 없다면, 일반적인 생각을 하면 된다.
이는 「공감의 체계」에서 배울 것이다.



그림에서 한번 적용해보자.



Note

(가)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둠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동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저어 서로 응시하는 쌀쌀한 풍경. 아름다운 풍토는 이미
고구려같은 정신도 신라 같은 이야기도 없는가.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우리 무엇에 불안한 얼굴의 의미는
여기에 있었던가.

모든 유험(流血)은 꿈같이 가고 지금도 나무 하나 안심하고서
있지 못할 광장. 아직도 **정맥**은 끊어진 채 휴식인가 아워어 가는
이야기뿐인가.

언제 한 번은 불고야 말 독사의 혀같이 **징그러운 바람**이여.
너도 이미 아는 모진 겨우살이를 또 한 번 겪으라는가 아무런
죄도 없이 피어난 꽃은 시방의 자리에서 얼마를 더 살아야
하는가 아름다운 길은 이뿐인가.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둠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동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박봉우, 「휴전선」-

(나)

득음은 못하고, 그저 시골장이나 떠돌던
소리꾼이 있었다, 신명 한 가락에
막걸리 한 사발이면 그만이던 흰 두루마기의 그사내
꿈속에서도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한 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더니

[A] 오늘은, 왁새* 울음 되어 우향산 솔밭을 다 적시고
우포늪 둔치, 그 눈부신 봄빛 위에 자운영 꽃불 질러 놓는다

[B] 살아서는 근본마저 알 길 없던 혈혈단신
텃밭한 얼굴에 달빛 같은 슬픔이 영겨 수염을 흔들곤 했다
늙은 고수라도 만나면

어깨 들썩 산 하나를 흔들었다
[C] 필생 동안 그가 찾아 헤맸던 소리가
적막한 늙 뒷산 솔바람 맑은 가락 속에 있었던가

소목 장재 토평마을 양파들이 시퍼런 물살 몰아칠 때
[D] 일제히 깃을 치며 동편제* 넘어가는

저 왁새들
완창 한 판 잘 끝났다고 하늘 선회하는
[E] 그 소리꾼 영혼의 심연이

우포늪 꽃잔치를 자지러지도록 무르익힌다

-배한봉, 「우포늪 왁새」-

*왁새: 왜가리의 별명.
*동편제: 판소리의 한 유품

(다)

그 바위를 가리켜 어느 건방진 옛사람이 오심암(吾心岩)
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다 한다. 그보다도 조금 겸손한 누구는
세심암(洗心岩)이라고 불렀다 한다.

기운차게 일어난 산발이 이곳에 이르러 오심암의 절경을
남기기 위하여 한 동근 골짜기를 이루어 놓고 다시 다물어졌다.

질은 단풍 빛에 붉게 누렇게 물든 **검은 절경**의 성장(盛裝),
그것을 선을 두른 동해보다도 더 푸른 하늘빛, 천사가 흘러고
간 형겁인 듯 봉우리 위에 가볍게 비낀 백옥보다도 흰 얇은 구름
조각.

이것은 분명히 자연이 흘려 놓은 예술의 극치다. 그러나
겸손한 자연은 그의 귀한 예술이 홍진(紅塵)에 물들 것을
염려하여 그것을 이 깊은 산골짜기에 감추었던 것인가 보다.

어귀까지 ‘버스’를 불러오고 이곳까지 2등 도로를 끌어 오는
것은 본래부터 그의 뜻은 아니었을 게다. 오직 사람만이 장하지도
아니한 그들의 예술을 천하에 뽐낼 기회만 엿보나 보다.

둘러보건대 이 골짜기에는 일찍이 먼지를 품은 **미친 바람**과
같은 것은 지나가 본 일이 아주 없었나 보아서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 티끌을 품은 듯한 아무것도 없다. 잠깐 내 자신을
굽어보니 허영계 먼지 낀 의복, 그 밑에 숨은 먼지 낀 내 몸뚱어리,
그리고 또 그 속에 얽드린 먼지 낀 내 마음, 나는 그 텃기 모르는
순결한 자연 속에 쓰레기처럼 동떨어진 내 몸의 더러움을
새삼스럽게 부끄러워하였다.

(중략)

차디찬 **바위** 위에 신발을 벗고 모자를 던지고 외투를 벗어
팽개치고 반듯이 누워서 눈을 감으니 인생도 예술도 다 어디로
사라지고 오직 끝없는 **망각**이 내 마음을 아니 우주를 채우며
온다. 그러나 몸을 식히며 스며드는 **찬기**는 어느새 거리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들의 위치를 깨닫게 한다. 우리는 채 씻기지
않은 마음을 거두어 가지고 잠시나마 정을 들인 오심암을 두
번 세 번 돌아다보면서 간 길을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였다.
좋은 벗 떠나기란 싫은 것처럼, 좋은 자연에도 석별의 정은
마찬가지가 보다. 또한 좋은 음식을 만났을 때 벗을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떠나고 싶지 않은 자연을 앞에 두고는
멀리있는 벗들이 갑자기 그리웁다. 나는 마음속으로 어느새
오심암에게 무언(無言)의 약속을 주어 버렸다.

‘내년에는 벗을 데리고 또 찾아오마고’

-김기림, 「주을은천행」-



1. (가) ~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의 삶과 공간의 의미를 연결 지어 주제 의식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갈등과 대립이 없는 화합의 세계를 보여 줌으로써 희망적인 미래를 예견하고 있다.
- ③ 역사적 상황을 직시함으로써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참여의식을 표방하고 있다.
- ④ 자연이 인간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특정한 장소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교만한 태도에 대한 비판을 이끌어 내고 있다.

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설의적 표현으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소재의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③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가)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화자의 인식을 자연물에 투영하여 시적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3. (가)와 (다)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천동 같은 화산’은 신뢰를 잃은 상황이 초래한 불안한 현실을, (다)의 ‘검은 절경’은 아름다움을 잃은 풍경에서 느껴지는 암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의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하나로 이어진 세계를, (다)의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는 흠결 없는 세계를 그려내고 있다.
- ③ (가)의 끊어진 ‘정맥’은 ‘유혈’을 이겨낸 삶의 의지를, (다)의 엄습하는 ‘찬기’는 정든 곳을 떠나야 하는 절망감을 환기하고 있다.
- ④ (가)의 ‘징그러운 바람’은 미래에 닥칠지 모를 모진 상황을, (다)의 ‘미친 바람’은 삶에서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를 상징하고 있다.
- ⑤ (가)의 ‘꽃’은 죄 없이 ‘요런 자세’로 삶에 순응하는 존재를, (다)의 ‘바위’는 지나온 과거를 ‘망각’하며 삶을 회회하는 존재를 표현하고 있다.

4. <보기>를 참고하여 [A] ~ [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 시의 화자는 ‘우포늪’에서 왓새 울음소리를 들으며, 득음을 못한 채 생을 마감했던 한 ‘소리꾼’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화자는 왓새 울음소리에서 고단하고 외로웠던 소리꾼이 평생을 추구했던 절창을 연상함으로써, 우포늪의 생명력이 소리꾼의 영혼을 절창으로 이끌었음을 표현하고자 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세계에서 창조되는 예술의 경지와 우포늪의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형상화한 것이다.

- ① [A]: 화자는 왓새 울음소리와 우포늪의 풍경을 연결 지어 소리꾼이 추구했던 절창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 ② [B]: 득음의 경지를 찾아 떠돌았던 소리꾼의 얼굴에 묻어나는 삶의 비애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C]: 소리꾼이 평생 추구했던 절창을 우포늪에서 찾아낸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D]: 화자가 상상적으로 떠올린 세계를 우포늪 일대의 현실적 공간과 결부하고 있다.
- ⑤ [E]: 날아가는 왓새와 완창을 한 소리꾼을 대비하여 자연과 인간이 통합된 예술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5. <보기>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다)를 감상한 내용이다. ㉠ ~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선생님 : 수필은 글쓴이의 성찰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반성적이고, 깨달음을 전한다는 점에서 교훈적이며, 인생과 사회에 대한 인식과 판단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글쓴이의 발상과 통찰은 제재에서 새로운 의미를 이끌어 내고, 글쓴이의 문체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활용되지요. 그러면 이 작품에 드러난 수필의 특징을 확인해 봅시다.

학생 1 : 가을의 풍경을 효과적으로 그려 내기 위해 감각적인 문체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

학생 2 : ‘예술의 극치’와 ‘장하지도 아니한’ 예술을 대비하는 데에서, 인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엿볼 수 있어요. ㉡

학생 3 : ‘오심암’의 경지에서 ‘겸손한 자연’, ‘순결한 자연’을 이끌어 내는 데에서, 대상의 새로운 의미에 대한 통찰을 엿볼 수 있어요. ... ㉢

학생 4 : 인간의 삶에서 자연이 ‘티끌’처럼 작아 보인다고 한다는 점에서, 사색을 통해 교훈을 얻는 수필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어요. ... ㉣

학생 5 : ‘먼지 낀 의복’을 보고 ‘뭉뚱어리’와 ‘마음’에 대한 부끄러움을 떠올린 데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반성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

- ① ㉠ ② ㉡ ③ ㉢ ④ ㉣ ⑤ ㉤

수업

배한봉, 「우포늪 왁새」

(나)

득음은 못하고, 그저 시골장이나 떠돌던
소리꾼이 있었다, 신명 한 가락에
막걸리 한 사발이면 그만이던 흰 두루마기의 그 사내
꿈속에서도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한 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더니

[A] 오늘은, 왁새* 울음 되어 우항산 솔밭을 다 적시고
우포늪 둔치, 그 눈부신 봄빛 위에 자운영 꽃불 질러 놓는다

[B] 살아서는 근본마저 알 길 없던 혈혈단신
텅텅한 얼굴에 달빛 같은 슬픔이 영겨 수업을 흔들곤 했다
늙은 고수라도 만나면

[C] 필생 동안 그가 찾아 헤맸던 소리가
적막한 늪 뒷산 솔바람 맑은 가락 속에 있었던가
소목 장재 토평마을 양파들이 시퍼런 물살 몰아칠 때

[D] 일제히 깃을 치며 동편제* 넘어가는
저 왁새들

[E] 완창한 판 잘 끝냈다고 하늘 선회하는
그 소리꾼 영혼의 심연이
우포늪 꽃잔치를 자지러지도록 무르익힌다

-배한봉, 「우포늪 왁새」-

*왁새: 왜가리의 별명.

*동편제: 판소리의 한 유파

〈보기〉

이 시의 화자는 ‘우포늪’에서 왁새 울음소리를 들으며, 득음을 못한 채 생을 마감했던 한 ‘소리꾼’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화자는 왁새 울음소리에서 고단하고 외로웠던 소리꾼이 평생을 추구했던 절창을 연상함으로써, 우포늪의 생명력이 소리꾼의 영혼을 절창으로 이끌었음을 표현하고자 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세계에서 창조되는 예술의 경지와 우포늪의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형상화한 것이다.

〈보기〉 분석

공감



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의 삶과 공간의 의미를 연결 지어 주제 의식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갈등과 대립이 없는 화합의 세계를 보여 줌으로써 희망적인 미래를 예견하고 있다.
- ③ 역사적 상황을 직시함으로써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참여의식을 표방하고 있다.
- ④ 자연이 인간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특정한 장소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교만한 태도에 대한 비판을 이끌어 내고 있다.

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설의적 표현으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소재의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③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가)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화자의 인식을 자연물에 투영하여 시적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3. (가)와 (다)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천둥 같은 화산’은 신뢰를 잃은 상황이 초래한 불안한 현실을, (다)의 ‘검은 절경’은 아름다움을 잃은 풍경에서 느껴지는 암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의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하나로 이어진 세계를, (다)의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는 흠결 없는 세계를 그려내고 있다.
- ③ (가)의 끊어진 ‘정맥’은 ‘유혈’을 이겨낸 삶의 의지를, (다)의 엄습하는 ‘찬기’는 정든 곳을 떠나야 하는 절망감을 환기하고 있다.
- ④ (가)의 ‘징그러운 바람’은 미래에 닥칠지 모를 모진 상황을, (다)의 ‘미친 바람’은 삶에서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를 상징하고 있다.
- ⑤ (가)의 ‘꽃’은 죄 없이 ‘요런 자세’로 삶에 순응하는 존재를, (다)의 ‘바위’는 지나온 과거를 ‘망각’하며 삶을 회회하는 존재를 표현하고 있다.

명심보감 & 어휘 보강

명심보감 & 어휘 보강

명심보감 & 어휘 보강



4. <보기>를 참고하여 [A] ~ [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명심보감 & 어휘 보강

<보 기>

이 시의 화자는 ‘우포늪’에서 왓새 울음소리를 들으며, 득음을 못한 채 생을 마감했던 한 ‘소리꾼’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화자는 왓새 울음소리에서 고단하고 외로웠던 소리꾼이 평생을 추구했던 절창을 연상함으로써, 우포늪의 생명력이 소리꾼의 영혼을 절창으로 이끌었음을 표현하고자 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세계에서 창조되는 예술의 경지와 우포늪의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형상화한 것이다.

- ① [A]: 화자는 왓새 울음소리와 우포늪의 풍경을 연결 지어 소리꾼이 추구했던 절창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 ② [B]: 득음의 경지를 찾아 떠돌았던 소리꾼의 얼굴에 묻어나는 삶의 비애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C]: 소리꾼이 평생 추구했던 절창을 우포늪에서 찾아낸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D]: 화자가 상상적으로 떠올린 세계를 우포늪 일대의 현실적 공간과 결부하고 있다.
- ⑤ [E]: 날아가는 왓새와 완창을 한 소리꾼을 대비하여 자연과 인간이 통합된 예술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5. <보기>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다)를 감상한 내용이다. ㉠ ~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명심보감 & 어휘 보강

<보 기>

선생님 : 수필은 글쓴이의 성찰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반성적이고, 깨달음을 전한다는 점에서 교훈적이며, 인생과 사회에 대한 인식과 판단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글쓴이의 발상과 통찰은 제재에서 새로운 의미를 이끌어 내고, 글쓴이의 문체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활용되지요. 그러면 이 작품에 드러난 수필의 특징을 확인해 봅시다.

학생 1 : 가을의 풍경을 효과적으로 그려 내기 위해 감각적인 문체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

학생 2 : ‘예술의 극치’와 ‘장하지도 아니한’ 예술을 대비하는 데에서, 인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엿볼 수 있어요. ㉡

학생 3 : ‘오심암’의 경치에서 ‘겸손한 자연’, ‘순결한 자연’을 이끌어 내는 데에서, 대상의 새로운 의미에 대한 통찰을 엿볼 수 있어요. ... ㉢

학생 4 : 인간의 삶에서 자연이 ‘티끌’처럼 작아 보인다고 한다는 점에서, 사색을 통해 교훈을 얻는 수필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 ㉣

학생 5 : ‘먼지 낀 의복’을 보고 ‘몸뚱어리’와 ‘마음’에 대한 부끄러움을 떠올린 데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반성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가)

두고 온 것들이 빛나는 때가 있다
빛나는 때를 위해 소금을 뿌리며
우리는 이 저녁을 떠돌고 있는가
사방을 둘러보아도
등불 하나 켜 든 이 보이지 않고
등불 뒤에 속삭이며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 들리지 않는다
잊혀진 목소리가 살아나는 때가 있다
잊혀진 ㉠한 목소리 잊혀진 다른 목소리의 끝을 찾아
목메이게 부르짖다 잦아드는 때가 있다
잦아드는 ㉡외마디 소리를 찾아 칼날 세우고
우리는 이 새벽길 숨가쁘게 넘고 있는가
하늘 올려보아도
함께 어둠 지새던 별 하나 눈뜨지 않는다
그래도 두고 온 것들은 빛나는가
빛을 뿜으면서 한 번은 되살아나는가
우리가 뿌린 소금들 반짝반짝 별빛이 되어
오던 길 환히 비춰 주고 있으니

-이시영, 「그리움」

(나)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게
어찌 ㉠바람뿐이라.
감나무 잎새를 반짝이는 게
어찌 햇살뿐이라.
아까는 ㉢오색딱다구리가
따다다닥 짝고 가더니
봐 봐, 시방은 ㉣침설모가
쭈르르 타고 내려오네.
사랑이 끝났기로서니
그리움마저 사라지랴,
그 그리움 날로 자라면
주먹송이처럼 커 갈 땡감들.
때론 머리 위로 ㉤흰구름 이고
때론 온종일 ㉥장대비 맞아 보게.
이별까지 나눈 마당에
기다림은 웬 것이라만,
감나무 그늘에 평상을 놓고
그래 그래, 밤이면 잠 뒤척여
산이 우는 소리도 들어 보고
새벽이면 퍼뜩 깨어나
계곡 물소리도 들어 보게.
그 기다림 날로 익으니
서러움까지 익어선
저 질푸른 감들, 마침내
형형 등불을 밝힐 것이라면
세상은 어찌 환하지 않으랴.
하늘은 어찌 부시지 않으랴.

-고재중, 「감나무 그늘 아래」-



(다)

천지간에 만물이 소리를 내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초목은 움직이지 않으면 그 자체로 소리가 나지 않으나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난다. 그런즉 초목이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은 바람이다. 금석은 때리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소리가 나지 않으나 물건이 때리면 소리가 난다. 그런즉 금석이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은 물건이다. 무릇 크고 작은 만물이 소리를 내는 것은 또한 반드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안으로는 오장이 있고 밖으로는 형체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어찌 소리를 내겠는가. 기(氣)가 안에 쌓이고 밖으로 드러난 뒤라야 소리가 나는 것이다. 그런즉 사람이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은 기이다.

소리는 한 가지가 아니니, 쓸모없는 소리가 있고 쓸모 있는 소리가 있다. 재채기 소리와 코 고는 소리는 사람의 소리 가운데 쓸모없는 것이고, 탄식하고 답소하는 소리는 사람의 소리 가운데 쓸모 있는 것이다. 쓸모 있는 소리에는 아름다운 소리와 추한 소리가 있다.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좋아하면 아름다운 소리이고, 미워하면 추한 소리이다. 아름다운 소리에는 실상이 있는 소리가 있고 흠어지는 소리가 있다. 입에서 나와 글로 쓰이지 못하면 흠어지는 소리가 되고, 입에서 나와 글로 쓰이면 실상이 있는 소리가 된다. 실상이 있는 소리에는 바른 것이 있고 샛된 것이 있다. 또 바른 것 같으면서 샛된 것도 있고, 혹 샛된 것 같으면서 바른 것도 있다. ㉠사람의 소리로서 남에게 듣기 좋고, 남에게 듣기 좋아 글로 쓰이고, 글로 쓰였으면서 바름에 합당하다면 그것을 일컬어 ㉡좋은 소리라 한다.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구나.

최립은 좋은 소리를 내는 사람에 가깝다. 그의 문장이 비록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 뜻은 바름을 향한다. 그러니 학업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바르게 되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내가 들으니 소리를 내는 만물은 그 본체가 크면 그 소리 또한 크고, 그 본체가 작으면 그 소리 또한 작다고 한다. 최립은 소리가 크니 그 본체가 큰 것을 알 만하다. 사람의 본체는 마음이니 그의 마음이 가히 크다고 하겠다. 내가 또 들으니 크게 부딪치면 큰 소리가 나며, 작게 부딪치면 작은 소리가 난다고 한다. 큰 바람이 초목을 움직이면 천지를 뒤흔들 듯하나, 작은 바람이 불면 한 번 살랑거림에 불과할 뿐이다. 금석을 치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사람의 소리는 기가 크면 그 소리가 크게 나고 기가 작으면 그 소리가 작게 나니, 최립의 기는 가히 크다고 하겠다.

-이이, 「최립에게 주는 글」

1.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가)는 계절을 나타내는 소재로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나)는 자연을 관조하며 시적 상황을 탈속적 태도로 바라보고 있다.
- ③(다)는 글쓴이와 타인의 생각을 비교하며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 ④(가)와 (다)는 모두, 연쇄적 표현을 통해 주체의 태도 변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⑤(나)와 (다)는 모두, 가정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2.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는 밝음과 어두움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양상이 서로 다르다. (가)는 연대를 상실한 암울한 현실 상황을 어두운 밤으로 표상하고, 빛이 회복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드러낸다. 이러한 소망은 소금을 뿌리며 그리운 이를 찾아 다니는 행동으로 형상화된다. (나)는 자연 속에서 공존하고 있는 명암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성숙에 대한 성찰을 드러낸다. 이러한 성찰은 자연물과 내면을 동일시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양상을 그려 내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 ①(가)에서 ‘사방을 둘러보’며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은, ‘밤을 지키는’ 이의 눈을 피해 다니며 그리운 존재를 찾고 있는 암울한 현실 상황을 보여 주는군.
- ②(가)에서 ‘오던 길’을 ‘소금들이 ‘환히 비취 주’는 것은, ‘두고 온 것들이 되살아날 미래를 기대하게 한다는 점에서 빛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 실현될 수 있음을 암시하겠군.
- ③(나)에서 ‘반짝’이는 ‘잎새’와 ‘그늘’을 함께 지닌 ‘감나무’ 아래에 ‘평상을 놓’는 것은, 밝음과 어두움이 어우러져 있는 자연에서 내면에 대한 성찰을 이어 가고 있음을 나타내는군.
- ④(가)에서 ‘별 하나 눈뜨지 않’는 밤은 함께하던 이가 보이지 않는 상실의 상황을, (나)에서 ‘잠 뒤척’이는 ‘밤’은 마음이 감처럼 ‘익어’ 가는 데 필요한 성숙의 시간을 의미하겠군.
- ⑤(가)에서 ‘빛나는 때를 위해’ ‘저녁’부터 ‘새벽’까지 길을 걷는 행동과, (나)에서 ‘질푸른 감들이 ‘등불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은 모두, 밝음이 나타날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3.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목메이게 부르짖’는 것과 ㉡을 찾고자 ‘숨가쁘게’ 길을 넘는 것에는 모두, 대상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드러난다.
- ② ㉢ 중에는 쓸모는 있지만 남들이 듣고 미워하는 소리가 있는 한편, ㉣은 아니지만 남들이 듣고 좋아하는 소리가 있다.
- ③ ㉠이 잦아드는 것은 ‘다른 목소리의 끝’에 닿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이 흠어지는 것은 아름다운 소리가 글로써 실현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 ④ ㉠은 ‘잊혀진’ 상태이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화자가 생각하는 대상이고, ㉣은 바른 것 같으면서도 샛된 것일 수 있다고 글쓴이가 생각하는 대상이다.
- ⑤ ㉡을 찾기 위해 화자는 미세한 소리에도 ‘칼날’을 ‘세우’듯이 민감하게 반응하려 하고, ㉢ 중에서 담소하는 소리뿐만 아니라 탄식하는 소리도 글쓴이는 쓸모 있다고 여기고 있다.

4. ㉠ ~ ㉣를 중심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는 ㉠가 흔드는 것이 감나무 잎새뿐이라고 여기다가 ㉡를 보며 그 생각을 바로잡고 있다.
- ② 화자는 ㉢가 내는 소리와 ㉣의 움직임들 통해 감나무 열매가 충분히 익은 상태임을 짐작하고 있다.
- ③ 화자는 ㉢와 ㉣가 감나무에서 만났다가 한순간에 헤어지는 것을 보며 자신의 사랑이 끝났음을 떠올리고 있다.
- ④ 화자는 감나무 열매가 자라는 과정에서 ㉠를 만나기도 하고 ㉡를 만나기도 하는 일이 유의미하다고 여기고 있다.
- ⑤ 화자는 ㉢와 ㉣가 감나무를 떠난 후에 ㉠와 ㉡가 오는 것을 보며 머지않아 새로운 사랑이 시작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5.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다)는 마음에서 기가 움직여 뜻이 소리로 나오는 데 있어 도리에 합당해야 좋은 글[文]이라는 글쓴이의 문학론을 바탕으로, 상대의 문장을 평가하며 칭찬과 당부를 전하고 있다.

- ① ‘만물’이 소리 나는 이치에서 시작하여 ‘사람’이 소리를 내는 이치를 밝히며, 소리를 화두로 삼아 문장에 대해 말하고 있군.
- ② ‘소리’가 지닌 상반된 특성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좋은 소리’임을 제시하여, 문장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바를 드러내고 있군.
- ③ 최립의 문장이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참으로 어려운 일’에 가까움을 언급하며, 그의 문장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고 있군.
- ④ 최립의 문장에 담긴 ‘뜻’이 도리에 합당함을 향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그가 학업에 정진할 것을 당부하고 있군.
- ⑤ 글로 드러난 최립의 소리가 크게 나는 것이 그의 ‘마음’과 ‘기’에서 비롯됨을 언급하여, 그의 문장이 뜻을 크게 드러내고 있음을 칭찬하고 있군.



수업

이시영, 「그리움」

(가)

두고 온 것들이 빛나는 때가 있다
빛나는 때를 위해 소금을 뿌리며
우리는 이 저녁을 떠돌고 있는가
사방을 둘러보아도
등불 하나 켜 든 이 보이지 않고
등불 뒤에 속삭이며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 들리지 않는다
잊혀진 목소리가 살아나는 때가 있다
잊혀진 ㉠한 목소리 잊혀진 다른 목소리의 끝을 찾아
목메이게 부르짖다 잦아드는 때가 있다
잦아드는 ㉡외마디 소리를 찾아 칼날 세우고
우리는 이 새벽길 숨가쁘게 넘고 있는가
하늘 올려보아도
함께 어둠 지새던 별 하나 눈뜨지 않는다
그래도 두고 온 것들은 빛나는가
빛을 뿜으면서 한 번은 되살아나는가
우리가 뿌린 소금들 반짝반짝 별빛이 되어
오던 길 환히 비춰 주고 있으니

-이시영, 「그리움」-

〈보기〉

(가)와 (나)는 밝음과 어두움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양상이 서로 다르다. (가)는 연대를 상실한 암울한 현실 상황을 어두운 밤으로 표상하고, 빛이 회복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드러낸다. 이러한 소망은 소금을 뿌리며 그리운 이를 찾아다니는 행동으로 형상화된다. (나)는 자연 속에서 공존하고 있는 명암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성숙에 대한 성찰을 드러낸다. 이러한 성찰은 자연물과 내면을 동일시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양상을 그려 내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보기〉 분석

공감



수업

고재중, 「감나무 그늘 아래」

(나)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게
어찌 ㉠바람뿐이라.
감나무 잎새를 반짝이는 게
어찌 햇살뿐이라.
아까는 ㉡오색딱따구리가
따다다닥 짝고 가더니
봐 봐, 시방은 ㉢청설모가
쫓르르 타고 내려오네.
사랑이 끝났기로서니
그리움마저 사라지랴,
그그리움 날로 자라면
주먹송이처럼 커 갈 땡감들.
때론 머리 위로 ㉣흰 구름 이고
때론 온종일 ㉤장대비 맞아 보게.
이별까지 나눈 마당에
기다림은 웬 것이라만,
감나무 그늘에 평상을 놓고
그래 그래, 밤이면 잠 뒤척여
산이 우는 소리도 들어 보고
새벽이면 퍼뜩 깨어나
계곡 물소리도 들어 보게.
그기다림 날로 익으니
서러움까지 익어선
저 질푸른 감들, 마침내
형형 등불을 밝힐 것이라면
세상은 어찌 환하지 않으랴.
하늘은 어찌 부시지 않으랴.

-고재중, 「감나무 그늘 아래」-

〈보기〉

(가)와 (나)는 밝음과 어두움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양상이 서로 다르다. (가)는 연대를 상실한 암울한 현실 상황을 어두운 밤으로 표상하고, 빛이 회복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드러낸다. 이러한 소망은 소금을 뿌리며 그리운 이를 찾아다니는 행동으로 형상화된다. (나)는 자연 속에서 공존하고 있는 명암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성숙에 대한 성찰을 드러낸다. 이러한 성찰은 자연물과 내면을 동일시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양상을 그려 내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보기〉 분석

공감



수업

이시영, 「그리움」 & 고재중, 「감나무 그늘 아래」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가)는 계절을 나타내는 소재로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나)는 자연을 관조하며 시적 상황을 탈속적 태도로 바라보고 있다.
- ③(다)는 글쓴이와 타인의 생각을 비교하며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 ④(가)와 (다)는 모두, 연쇄적 표현을 통해 주체의 태도 변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⑤(나)와 (다)는 모두, 가정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2.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는 밝음과 어두움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양상이 서로 다르다. (가)는 연대를 상실한 암울한 현실 상황을 어두운 밤으로 표상하고, 빛이 회복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드러낸다. 이러한 소망은 소금을 뿌리며 그리운 이를 찾아 다니는 행동으로 형상화된다. (나)는 자연 속에서 공존하고 있는 명암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성숙에 대한 성찰을 드러낸다. 이러한 성찰은 자연물과 내면을 동일시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양상을 그려 내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 ①(가)에서 ‘사방을 둘러보며’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은, ‘밤을 지키는’ 이의 눈을 피해 다니며 그리운 존재를 찾고 있는 암울한 현실 상황을 보여 주는군.
- ②(가)에서 ‘오던 길’을 ‘소금들이’ ‘환히 비취 주’는 것은, ‘두고 온 것들’이 되살아날 미래를 기대하게 한다는 점에서 빛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 실현될 수 있음을 암시하겠군.
- ③(나)에서 ‘반짝’이는 ‘잎새’와 ‘그늘’을 함께 지닌 ‘감나무’ 아래에 ‘평상을 놓’는 것은, 밝음과 어두움이 어우러져 있는 자연에서 내면에 대한 성찰을 이어 가고 있음을 나타내는군.
- ④(가)에서 ‘별 하나 눈뜨지 않’는 밤은 함께하던 이가 보이지 않는 상실의 상황을, (나)에서 ‘잠 뒤척’이는 ‘밤’은 마음이 감처럼 ‘익어’ 가는 데 필요한 성숙의 시간을 의미하겠군.
- ⑤(가)에서 ‘빛나는 때를 위해’ ‘저녁’부터 ‘새벽’까지 길을 걷는 행동과, (나)에서 ‘질푸른 감들이’ ‘등불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은 모두, 밝음이 나타날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명심보감 & 어휘 보강

명심보감 & 어휘 보강



3.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목메이게 부르짖’는 것과 ㉡을 찾고자 ‘숨가쁘게’ 길을 넘는 것에는 모두, 대상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드러난다.
- ② ㉢ 중에는 쓸모는 있지만 남들이 듣고 미워하는 소리가 있는 한편, ㉣은 아니지만 남들이 듣고 좋아하는 소리도 있다.
- ③ ㉠이 잦아드는 것은 ‘다른 목소리의 끝’에 닿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이 흩어지는 것은 아름다운 소리가 글로써 실현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 ④ ㉠은 ‘잊혀진’ 상태이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화자가 생각하는 대상이고, ㉣은 바른 것 같으면서도 샅된 것일 수 있다고 글쓴이가 생각하는 대상이다.
- ⑤ ㉡을 찾기 위해 화자는 미세한 소리에도 ‘칼날’을 ‘세우’듯이 민감하게 반응하려 하고, ㉢ 중에서 담소하는 소리뿐만 아니라 탄식하는 소리도 글쓴이는 쓸모 있다고 여기고 있다.

명심보감 & 어휘 보강

4. ㉠ ~ ㉣을 중심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는 ㉠가 흔드는 것이 감나무 잎새뿐이라고 여기다가 ㉡를 보며 그 생각을 바로잡고 있다.
- ② 화자는 ㉢가 내는 소리와 ㉣의 움직임을 통해 감나무 열매가 충분히 익은 상태임을 짐작하고 있다.
- ③ 화자는 ㉡와 ㉣가 감나무에서 만났다가 한순간에 헤어지는 것을 보며 자신의 사랑이 끝났음을 떠올리고 있다.
- ④ 화자는 감나무 열매가 자라는 과정에서 ㉠를 만나기도 하고 ㉢를 만나기도 하는 일이 유의미하다고 여기고 있다.
- ⑤ 화자는 ㉡와 ㉣가 감나무를 떠난 후에 ㉠와 ㉢가 오는 것을 보며 머지않아 새로운 사랑이 시작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명심보감 & 어휘 보강

5.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다)는 마음에서 기가 움직여 뜻이 소리로 나오는 데 있어 도리에 합당해야 좋은 글[文]이라는 글쓴이의 문학론을 바탕으로, 상대의 문장을 평가하며 칭찬과 당부를 전하고 있다.

- ① ‘만물’이 소리 나는 이치에서 시작하여 ‘사람’이 소리를 내는 이치를 밝히며, 소리를 화두로 삼아 문장에 대해 말하고 있군.
- ② ‘소리’가 지닌 상반된 특성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좋은 소리’임을 제시하여, 문장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바를 드러내고 있군.
- ③ 최립의 문장이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참으로 어려운 일’에 가까움을 언급하며, 그의 문장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고 있군.
- ④ 최립의 문장에 담긴 ‘뜻’이 도리에 합당함을 향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그가 학업에 정진할 것을 당부하고 있군.
- ⑤ 글로 드러난 최립의 소리가 크게 나는 것이 그의 ‘마음’과 ‘기’에서 비롯됨을 언급하여, 그의 문장이 뜻을 크게 드러내고 있음을 칭찬하고 있군.

